

오늘의 朝鮮日報

“여기서 무슨 도당이라도 모으겠다는 소리냐” 이문열의 ‘소설 안중근-불멸’ A24



존엄사 결정, 누가... 어떻게... A8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고 고통 없이 세상을 마감하도록 하자는 것이 존엄사이다.

‘美 공화당의 오바마’ 진달, 오바마와 연설 대결 A14

미 공화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바비 진달(Jindal) 루이지애나주지사가 24일(현지 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화당 대표로 연설한다.

이브 생 로랑 유품 ‘세기의 경매’ A16

패션 거장이 남긴 예술품 외에 불황도 무릎을 꿇었다. 23일부터 경매에 들어간 전설적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Saint Laurent)의 유품이 첫날 낙찰가 2억4600만달러를 기록해 개인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철분 결핍 주의 A20

엄마 젖을 먹는 아기들에게 철분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생후 6개월 된 영아들의 경우 ▲저장 철 고갈 ▲철 결핍 ▲철 결핍성 빈혈의 빈도가 모유수유군에서 각각 33%, 33%, 30%로 분유수유군(0%, 5%, 8%)보다 높았다.

조선경제

100층 빌딩의 ‘비밀’ B1

초고층빌딩은 건물을 ‘직각’으로 세우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공위성. 버즈 두바이의 경우, 인공위성 4대에서 보내 주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수직을 맞춘다.

주력사업이 죽어야 신사업이 산다 B3

기업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사업 육성에 나서면서 ‘신사업의 역할’에 직면하고 있다. ‘신사업의 역할’이란 회사가 미래를 위해 키우는 신규 사업이 잘 될수록 신사업과 대체 성격이 있는 기존 주력 사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사상 최고 맞대결’ 구리·이세돌 2국, 조선닷컴 생중계

세계 바둑계 1인자 자리를 놓고 사상 최고의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한국 이세돌 9단과 중국 구리(古力) 9단의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번기 두 번째 대국이 25일 오전 10시부터 조선닷컴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美대학은 ‘미국의 실패’를 가르친다

뉴욕대, 금융위기 원인·해법 담은 白書 펴내 학점없는 수업이지만 강의실 학생들로 꽉 차

뉴욕 월가(街)에서 비롯된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월가 바로 옆에 위치한 뉴욕대(NYU) 스텐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은 그 방법으로 일부 교과서를 덮고, 유명 신문들의 경제 기사를 직접 다뤘다.

23일 오후 5시, NYU 스텐 스쿨의 대형 강의실. 학점이 전혀 없는 수업이지만, 약 250석의 대형강의실은 톰슨 계단까지 주저앉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2750억 달러의 주택안정화 자금도 수업 소재였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모기지 담보 증권화 문제를 설명하던 스티븐 뉴워버그 교수는 “법원이 연체자에 대한 사안이 실패했다”고 운을 뗐다.

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연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통계 숫자를 들이대며 주장했다.

NYU뿐 아니다. 미국 대학에선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강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문과 저널 기고를 통해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수업은 정밀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한국에선 사실상 이공계의 전유물인 산학협동이 미국에선 금융산업에서도 광범하게 벌어져 이번 실패에서 배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2750억 달러의 주택안정화 자금도 수업 소재였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모기지 담보 증권화 문제를 설명하던 스티븐 뉴워버그 교수는 “법원이 연체자에 대한 사안이 실패했다”고 운을 뗐다.



23일 미국 뉴욕대 비즈니스스쿨 대형 강의실에서 경제학과 로렌스 화이트 교수가 금융위기에 대한 백서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내 제자를 학원에 보낼 순 없었어요”

학교, 사교육 이길수 있다 과천 중앙고 강용수 교사

“학교, 사교육 이길 수 있다”는 본지 기획을 읽고 장영미(47·경기도 과천)씨가 이메일로 제보를 했었다.



이진혜 기자 magnum91@chosun.com “내 제자들이 학원에 가도록 할 수는 없지만” 중앙고 강용수 교사가 7년간 방과후 체육 실기를 가르친 것은 이런 고집 때문이었다.

“과천 중앙고에 저희 아들(임태진·20)을 맡으셨던 강용수(35) 체육선생님이 계십니다. 방과 후 학교로 체육을 가르쳐 7년째 매년 10명 이상 대학에 보내셨어요.”

지난 13일 과천 중앙고 체육관에 학부모 3명이 모여 강 교사 스토리를 들려 주었다. 7년 전 큰아들 정병진(24)군은 국민대 체육학과에 보냈다는 어머니 이은규(50)씨는 “부모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학교가 해주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와서 매일같이 말썽이 있었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제 학교에 불려다녔으니, 교문 앞에 뿌린 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운동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피했어. 머리도 무سو로 뺏뺏이 세우고 담배에다 찜질도 하고요”라고 했다.

Advertisement for '조선만화' (Chosun Manwa)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and a testimonial for '닥스클럽 크라운 1년내 결혼 보장' (Daxclub Crown 1-year marriage guarantee).

오늘의 인기검색어?

한우리 독서지도사

한우리 독서지도사로 성공한 많은 분들이 실력이 다르기에 성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독서지도사 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독서지도사를 배출해냅니다.

Advertisement for '전국개강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National Opening Reading Guide Training Course) with a list of branch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한우리 독서지도사' (Hanuri Reading Guide) with a list of branch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한우리 독서지도사' (Hanuri Reading Guide) with a list of branch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3월 개강 프로그램' (March Opening Program) with a list of branch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신규 개설강좌' (Newly Opened Courses) with a list of branches and contact information.